

경제구역청 신설...규제완화로 투자 활성화

광주경제자유구역 내년 상반기 지정 전망과 과제

빛그린산단 등 4곳 선정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미래먹거리 AI·차 산업 탄력
5조 생산유발·3만명 일자리

정부가 지난 27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광주 등 3개 지역은 유관부처 협의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지정된다. 공식 지정까지 유관부처 협의의 만을 남겨뒀다는 점에서 공식 지정은 눈앞에 뒀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약 40명 규모의 투자유치 전문 기구인 가정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고, 조세감면·규제완화·경영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미래자동차 등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 4개지구 선정, 미래전략산업 육

성 청신호= 광주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비전을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로 정했다. 광주시는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확대, AI 기반 신산업창출, 쇠락하는 기존 주력산업과 AI융복합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어 광주만의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구별 주요 특화방향으로 미래형 자동화차산단지구(빛그린산단)는 친환경 자동차 분야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로 특화한다. 스마트 에너지산업 I·II지구(남구 에너지밸리 일 반산단,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단)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AI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해 기술 예정이다.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북·광산구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특화한다. AI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로서 중심으로 핵심산업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조

7751억원 생산, 1조9063억원 부가가치, 3만7075명 취업 유발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첨단 3지구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AI,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 기구 설립, 조세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의 후보 지역 선정은 산업부 사전 컨설팅, 올해 9월 말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후 평가위원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정부 예고대로 내년 상반기 확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광주시는 우선 투자유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가정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3본부 7팀 40명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키려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업부 장관 협의를 거쳐 광주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준속시까지 투자유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광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차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지원·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는 다양하다. 취득세(지방세)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지방세)도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하다. 국비 지원으로 진입도로·상하수도·폐기물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 운영비, 건축비 지원이 검토되며, 투자 금액에 따라 협상을 거쳐 기업에 현금 지원도 가능하다. 노동·장비계획·외환거래 등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혜택도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광주의 꿈이 한층 무르익게 됐다"면서 "만드시 그 꿈을 실현시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혁신·소통 바탕 AI 광주시대 열겠다"

이용섭 시장 송년 기자회견
2020년 20대 핵심시책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2019년 송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혁신, 소통, 청렴을 바탕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인공지능(AI)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0년 20대 핵심시책을 발표하고 "새해에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인공지능 중심도시(AI Hub City) 광주 조성사업 추진을 핵심 시책 전면으로 내세우며 "내년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재, 예산, 집적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626억원 확보, 첨단 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AI 집적단지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 사례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착공한 (주)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자동차 외에 에너지, 에어가전·공기 산업, 광융합, 의료·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등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 시장은 약속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천 살리기, 장록습지 보존 등도 환경 분야 주요 시책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5·18 세계화와 함께 의향 광주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을 쏟겠다"며 "곧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5·18 평화와 역사 왜곡을 차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광주는 정치 1번지에 머물지 않고 경제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경자년 새해에도 혁신과 소통의 양 날개로 시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 행정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추억의 충장축제·담양대나무·보성다향·영암왕인·장흥물축제

2020 '문화관광 축제' 선정

추억의 충장축제와 담양대나무축제 등 광주·전남 5개 축제가 정부의 내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전남 5개 축제를 비롯, 전국 35개 축제를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1996년부터 우수한 지역 축제를 선별해 매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된 축제는 향후 2년간 국비 지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내년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

제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급 구분없이 직접 재정지원 대상 문화관광축제를 지정,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 지원을 받게 될 광주·전남지역 대상 축제로는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추억의충장축제 등 5개가 선정됐다. 이들 축제는 올해 문화관광축제에도 이름 올렸던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 강진정자축제 등은 내년 지원 대상에는 제외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추억의충장축제가 29일 문화부의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제16회 추억의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모습

광주시, 31일 밤 5·18민주광장서 '송신년 시민축제'

광주시는 31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금남로 5·18민주광장과 민주의 종각에서 이용섭 시장, 종교단체, 민주화·독립유공자, 일반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신년 시민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축제는 7080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새해에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라는 의미를 담은 '2020개 주먹밥 만들기 체험 행사' 등으로 꾸러진다.

새해를 여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이 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천정배·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업인, 상인, 쥐피 청년, 장애인,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18명이 시민의 무병장수와 상생·화평을 염원하는 제야의 종을 33회 타종한다.

새해를 축하하기 위한 희망의 빛 퍼포먼스, 2020발의 폭죽을 쏘아올리는 불꽃놀이 등 행사도 진행된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 '남도 관광 특화·글로벌 명품 관광허브 도시' 만든다

市, 국제 관광도시 도약 청사진 발표

광주시가 2020년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지역 관광 현안과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광주 국제 관광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광주시·학계 관계자·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회

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3대 발전전략, 9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남도 관광 특화 거점도시, 글로벌 명품 관광 허브 도시, 미래관광 첨단 트렌드 선도 도시가 주요 전략으로 설정됐다. 9개 추진과제는 남도 미식 글로벌 명품화, 토탈 힐링 웰니스 관광, 아시아 관광 실크로드 조성, 외국인 여행 자유도시, 4차 산업혁명 미래 관광 등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전남도·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라·천년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기본계획', 내년 문화관광체육부가 수립하는 '남부권 관광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해 국제 관광도시 육성 사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과 제13회 광주비엔날레를 축으로 전담 여행사를 선정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가정 광주 관광재단 설립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

장 신축 사업도 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중외공원 아시아 예술정원사업,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5G 기반 문화역 스마트 관광로드, 아시아문화전당 배후 문화마를 조성사업, 전일빌딩 내 광주관광홍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채로운 관광거점 개발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국비를 투입해 전문기획 인력 양성, 관광스타트업 지원,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광주관광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 1만5000명 급식 지원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광주시는 겨울방학 결식이 걱정되는 아동 1만5111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담당공무원, 학교교사, 이웃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속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지원 유형에 따라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된다. 급식카드 이용업체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등 1257곳, 도시락 배달 4곳, 지역아동센터 305곳에서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에 제공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www.koem.or.kr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건강한 바다

해양환경공단이 지켜나가겠습니다

KOEM 해양환경공단